

김준호, 코코엔터 배임 무혐의처분 “법적결과 전부 아니지만… 홀가분”



개그맨 김준호(사진)가 전 소속사 코코엔터테인먼트와 관련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(배임) 혐의를 벗었다.

14일 오전 김준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“김준호, 김대희 등 코코엔터테인먼트와 얽힌 사건

(배임 혐의)을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이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(무혐의)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.

앞서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업무대행을 맡던 유모씨는 김준호, 김대희를 비롯해 코코엔터테인먼트 직원 2명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. 이후 경찰, 검찰에서 네 사람에게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.

여연심 변호사는 “검찰은 고소인이 김준호, 김대희 등을 상대로 한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. ‘김준호의 배임 및 업무방해로 인해 코코엔터테인먼트가 도산했다’는 고소인(유씨)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”고 밝혔다.

김준호는 “그동안 솔직히 마음고생 많았다.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홀가분함을 느낀다”며 “이번 일로 가족, 동료, 팬들과 모든 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. 늘 그랬듯이 그냥 희극인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”고 전했다. 이경호 기자 sky@mtstarnews.com